

수요관리
국내이슈

제2차 정유업계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

◆ 정유업계는 제2차 정유업계 탄소중립 협의회를 개최, 정부의 지원활동을 설명하고 기술개발 방향성을 논의('21.6.2.)

□ 배 경

- **(필요성)** 정유산업은 국내 산업 중 4번째 다배출업종이며, 탄소배출량은 연간 3,200만 톤으로 전체 산업 배출량의 약 6%를 차지('19)
 - 정유산업의 탄소중립 추진은 도전적 과제로,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와 기존의 감축 수단 외에 추가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평가됨
- **(1차회의)** 정유업계는 지난 「정유업계 탄소중립 협의회」 제1차 회의에서 탄소중립 추진전략 논의 및 탄소중립 동참 의지 표명('21.3.11.)

□ 주요 내용

- **(투자방향)** '50년 에너지공급량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은 23%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소생산, 바이오 연·원료, 해상풍력 등에 투자 필요
- **(핵심기술)** 「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 추진계획」을 발표하여 정유업계 탄소감축을 위한 대표적인 핵심기술을 언급
 - 핵심기술로 ①공정에 투입되는 원유 대체원료 개발, ②정유공정 맞춤형 CCUS 기술 개발, ③석유제품을 대체할 대체연료 기술개발 등을 제시
 - 향후 기술연구*를 통해 공정별 기술 발굴과 경제성 및 감축효과 등을 분석하여 「정유업계 탄소중립 기술개발 로드맵」을 제시할 계획
- * 정유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 연구(에너지기술연구원 주관, '21.5월~9월)
- 석유협회 및 정유기업은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과 친환경 석유제품 제조·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
- **(향후계획)** 정유업계와 산업부는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,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정책 수단을 수립할 예정
 - 산업부는 정유업계에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당부하며 R&D,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뒷받침할 것을 약속

<출처>

1. 수요관리 부문

- 국내이슈 < 제2차 정유업계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>
 - 제2차 정유업계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(산업통상자원부, 2021.6.2.)
 - 정유업계, '2050 탄소중립' 동참 첫걸음(산업통상자원부, 2021.3.11.)
 - SK, 이산화탄소에서 전기와 수소 생산 역발상으로 탄소 줄인다(SK이노베이션, 2020.10.21.)
 - GS칼텍스, 탄소발자국 줄인다...ESG 역량 강화(GS칼텍스 미디어허브, 2020.4.9.)
 - GS칼텍스, 한국가스공사와 손잡고 수소시장 진출한다(GS칼텍스 미디어허브, 2021.5.28.)
 - 탄소중립에 위기 몰린 韓정유사 COTC로 위기탈출 노린다(에너지경제, 2021.5.6.)
 - 새 성장전략 '비전 2030' 선언(에쓰오일, 2020.12.20.)
 - 현대오일뱅크, 에어프로덕츠와 수소 사업 협력(월간수소경제, 2021.4.7.)
 - 현대오일뱅크, 2030년 친환경 사업 이익비중 70%까지 늘린다(경향신문, 2021.4.30.)